

## News

### ‘현금 600만원씩’ 소상공인 지원안 이르면 내일 나온다

서울신문

인수위,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이르면 28일 발표… 1인당 600만원 현금 지원 방안과 함께 금융·세제 지원책 담길 전망  
현금 지원은 총 20조원 안팎의 재원 사용 예정… 금융지원책은 대환 및 금리 이차보전 지원안과 세제 지원책 포함… 총 33조원 안팎의 추경 규모 예상

### 은행 ‘시장성예금’ 잔고 급증…조달 여력 늘었지만 이자부담도 가중

CEO스코어데일리

1분기 시중은행의 시장성예금 잔고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 우리은행, 1분기 시장성예금 잔고가 약 4조 7,800억원으로 전년대비 57.2% 증가  
KB국민, 전년동기 대비 66.7% 증가… 올 1분기에 기준금리 상승으로 안정자산 찾는 역머니 무브 현상 일어나며 전반적인 수신고 증가… 자체 자금조달 여력 증가로 해석

### 금융그룹들, ‘앱 경쟁력 갖대’ MAU 늘리기 사활

서울파이낸스

주요 금융그룹들, MAU 목표치를 1,000만명 이상으로 잡고 디지털 전략 수립… 현재까지 가장 높은 수준의 MAU 실적 보유한 곳 KB금융그룹  
신한금융은 올해 1분기 말 기준 MAU 1,558만명으로 집계… 우리금융도 올 1분기 기준 MAU 규모 835만~885만명 수준… 하나금융 MAU는 400만명으로 추산

### KB국민·신한이어 우리은행도…점포 통폐합 가속화

이데일리

KB국민과 신한에 이어 우리은행도 점포폐쇄에 속도 내는 중… 오는 7월 내 폐쇄·통합 공지한 지점만 55개… 상반기 수준으로 지점 통폐합 검토 중인 하나은행까지 합치면 증가  
우리은행, 오는 7월 25일 점포 및 출장소 14곳을 인근 영업점으로 통폐합… 디지털·비대면화가 확산되면서 영업점 찾은 사람들이 줄어 대면 영업 유지 필요 없어…

### 자동차 가족 동승자 모두 최대 보장…손보업계 운전자보험 경쟁 치열

한국금융신문

손보사들, 4월 운전자보험 고객 선점을 위해 공격적으로 나서… KB손보, 운전자보험 특약인 가족동승자부상을 4월까지 업계 최대 수준으로 보장  
다른 보험사들도 운전자보험 심사 기준 낮추거나 한도 높이는 등 고객 확보에 나서는 중… 또한 생보사 특약으로도 번지는 모양새… IFRS17 하에서 보험손익이 높게 잡히기 때문

### 윤석열 시대 맞아 펫보험 시장 '기지개'

글로벌이코노믹

올해 펫보험 판매 보험사 10곳으로 2017년 3곳 대비 증가… 종전보다 보장 기간 늘리고 보장 항목 확대하면서 소비자 눈높이 맞추려는 시도  
윤석열 당선인이 내놓을 반려동물 정책도 펫보험 활성화로 이어질 전망… 표준수가 도입 발표… 다만 일각에서는 가입률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냉소적 반응도…

### 금투업계 마이데이터 2R 개시…신한금투·교보證 본인가 신청

뉴스1

22일 기준 신한금투, 교보증권, 금융위원회에 마이데이터 본허가 신청… 대신증권은 예비허가 신청… 현재 당국 허가 진행 중인 곳은 10곳으로 증가  
이르면 연내 10곳 이상의 증권사들이 고객 유치전에 가담할 전망… 다만 선발주자들이 시장 선점한 상황에서 차별화된 서비스 없을 경우 주목 끌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존재

### 상반기 리츠 투자 허용…연금저축펀드 돈몰린다

매일경제

연금저축 계좌를 통한 리츠 투자는 올해 상반기 중 가능할 것으로 보여… 규제 풀리면 리츠 한 종목당 100%까지 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금융위원회, “연금저축 계좌의 상장 리츠 투자를 상반기 내 허용하고 등록 절차 개선 등을 위한 법령 정비도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 언급

####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